

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76.19 (-101.49)	779.33 (-34.20)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2.939 (-0.037)	1356.00 (-10.20)



삼성·SK, AI 반도체 전쟁... 하반기 'HBM3E' 승부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3분기 실적 핵심 생성형 AI 반도체 삼성, HBM3 생산능력 2배 확대 하이닉스도 3분기부터 양산 시작 품질검증 실패시 재고 손실 위험

1, 2분기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 앞치락뒤치락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반기 실적도 HBM이 주도할 전망이다. 그 중심엔 HBM5세대인 HBM3이 있다.

4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삼성전자가 지난 7월 31일 2분기 실적에서 매출 74조 683억원, 영업이익 10조 443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 28조 5600억원, 영업이익 6조 4500억원을 기록해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매출 16조 4233억원, 영업이익 5조 4685억원보다 영업이익에서 1조원 이상 앞섰다.

1분기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섰다. 당시 SK하이닉스는 매출 12조 4300억원, 영업이익 2조 89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영업이익 1조 9100억원으로 다섯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SK하이닉스에 미치지 못했다.

상반기 실적에서 주목할 점은 AI용 HBM3을 중심으로 한 매출 상승이다. SK하이닉스는 HBM과 eSSD 등 AI 메모리 수요 강세로 1분기 대비 매출이 32% 증가했다.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8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2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생성형 AI 수요 덕에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3분기 실적 핵심 키워드는 생성형 AI 반도체가 될 예정이다. 두 회사 모두 HBM3E를 양산하며 물량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의 물량을 4배 늘리며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블랙웰용 HBM3E 납품을 위한 품질검증을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도 3분기부터 HBM3E를 양산해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이며, HBM4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도래와 AI 개발 붐으로 HBM 시장의 호조를 기대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회사의 HBM은 엔비디아 GPU 납품에 달려 있으며, 품질검증에 실패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은 "HBM 테스트는 다양한 조건에서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며 "테스트 탈락 후 재검사 신청과 완료에 수십 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받지 못한 HBM은 악성재고가 될 것"이라며 "HBM은 사전 협의 후 생산하기에 납품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재고 손실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인텔의 어닝 쇼크는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텔은 3분기 매출 전망치가 125억~135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블룸버그 전망치인 144억 달러에 못 미치는 실적이다.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실패와 파운드리 사업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2분기 영업손실은 19억 6400만 달러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AI 중심의 반도체 시장



안세영,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

'서툼극 여왕'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사펠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배드민턴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인도네시아·8위)을 2-1로 꺾었다. 한국 여자 단식 선수가 올림픽 4강을 넘어 결승까지 오른 건 1996 애틀랜타 대회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이후 28년 만이다. 안세영이 결승 진출을 확정된 뒤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재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GPU 외에도 AI 반도체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엔비디아의 GPU에 밀려 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인텔은 차세대 AI 가속기 '가우디3'을, AMD는 'MI300X'를 공개했다. 삼성과 SK는 HBM을 중심으로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AI 최적화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AI 거품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실적은 문제 없겠지만 내년 반도체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오가노이드사이언스, 9월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 베트남 발판 아세안 보폭 확대 오가노EZ 등 첨단기술 알린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된 바이오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사업 보폭을 넓힌다. 베트남과 태국을 기반으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을 공략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9월 30일 글로벌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병 및 정부 관계자를 초대해 대규모 네트워킹 행사 '아시아를 향해: 글로벌 바이오헬스의 새로운 시대(Moving Toward Asia: A New Era in Global BioHealth)'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는 물론,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바이오헬스 분야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개최한 '한국-베트남네트워킹 행사'가 올해는 아시아 국가 전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신약 평가 플랫폼 '오디세이(ODISEI)'와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플랫폼 '아톰(ATOM)'을 주축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오가노이드 신약 평가 플랫폼의 생산 거점이자 전진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해 8월 베트남 호치민에 현지법인 'VOS(베트남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디스커버리'를 열고 새로운 플랫폼 '오가노EZ'의 판매를 시작했다. 오가노EZ는 연구자가 편리하게 오가노이드를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 올인원 솔루션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해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우는 빈(Vin)그룹 산하 빈멕(VINMEC) 인터내셔널 병원과 베트남 국립 협회-국제 대학교, 베트남 과학기술대학교(VAST), 호치민 바이오테크놀로지 센터(BC HCMC) 등과 협업을 맺고 오가노이드는 물론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태국은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의 아시아 허브로 활용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6월에는 태국 주요 의과 대학인 마히돌 의과대학과 시리라지, 라마티바디 병원, 태국에서 가장 큰 민간 의료 그룹인 방콕 두시 메디컬 서비스(BDMS) 등과 협약을 맺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태국과는 다양한 기술교류는 물론, 임상과 연구개발, 치료제 상업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협력할 예정"이라며 "장 재생치료제, 아톰-C 등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엔화 상승세 뚜렷... '엔 캐리 청산' 우려

日 기준금리 인상에 엔화 가치 ▲ 美 연준 '빅스텝' 관측도 부채질

지난 7월 초 100엔당 850원대에 머무르던 원·엔 환율이 빠르게 반등해 930원을 목전에 뒀다.

일본은행(BOJ)이 시장의 예측을 뒤엎고 4개월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엔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 중이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엔화발(發)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엔 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9.22원(1.01%) 오른 919.93원에 오후 거래(오

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원·엔 환율은 야간 거래(오전 2시 종가)에서도 상승을 이어가며 100엔당 929.22원에 거래를 마쳐 930원을 목전에 뒀다.

지난 7월 초 100엔당 850원대에 머물렀던 원·엔 환율이 한 달 만에 80원 가까이 상승한 것.

또한 같은 기간 36년 6개월 만의 최저치인 달러당 162엔 수준까지 올랐던(엔화 가치 하락) 달러·엔 환율도 지난 2일(현지시간) 146.60엔까지 내려(엔화 가치 상승), 엔화 강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일본은행이 지난달 말 개최된 금융 정책회의에서 시장의 예측보다 앞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엔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시장에서 일본은행이 7월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지난달 31일 금융정책회의 직후 기준 연 0~0.1%인 기준금리를 연 0.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2월 기록한 연 0.3%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동훈 "尹 만남 먼저 제안... 가십이 중심되기에 할 일 많아" /사진 뉴시스
▲ 與, 野 지원금 법 강행 겨냥 "전 정권 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 폭주"

▲ 이재명·조국, 친분 과시 "10년간 시련? 고통 같이 이겨내... 이간질 소용없어"
▲ 배준영 "거부권 중독은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



▲ 박찬대 "尹 방송 장악, 5·18 폭동 묘사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 /사진 뉴시스
▲ 김정은, 북한 수해 피해 보도 겨냥 "변할 수 없는 적이 날조된 여론 전파"